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제3대 의정부교구장 임명

###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3월 13일(수) 오후 8시에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을 제3대 의정부교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신임 교구장님의 탄생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새로 임명되신 교구장님께서 주님의 은총 속에 교구장 직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순 제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웁니다.

**제1독서** 예레 31,31-34

**화답송** 시편 51(50),3-4,12-13,14-15(◎ 12ㄱ)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제2독서** 히브 5,7-9

**복음 환호송** 요한 12,26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음** 요한 12,20-33

**영성체송** 요한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예레미야와 고통의 신비



아나톨 유적지 근처 아나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곳에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톨”(예레 1,1)이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아나톨이라는 점에서 예레미야가 사제 에브야타르 가문 출신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에브야타르는 다윗 왕실에서 차독과 함께 사제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무렵, 아도니야 왕자와 솔로몬 왕자 사이에서 왕위 경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에브야타르는 아도니야의 편에 섰다가 좌천되어 고향 아나톨로 쫓겨가게 됩니다. 대사제의 자리는 솔로몬을 지지한 차독이 차지하고요(1열왕 2,26-27,35). 아무튼 예레미야가 아나톨 출신이라는 점은 그가 에브야타르 사제의 후손일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기원전 7세기 후반 요시야 임금 때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한 6세기 초까지입니다. 그야말로 격동기였는데, 당시 대국(大國)인 아시리아의 몰락(기원전 612년)과 유다 왕국의 몰락(기원전 587년)이 일어난 때입니다. 사실 비극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다가오는 낌새를 알아차리는 혜안이 필요한데, 옛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가 쌓여 한계에 달하는 기색이 감지될 때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파수꾼’(예레 4,5-6)처럼 백성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파수꾼 나팔을 불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예언자가 겪는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도 예레미야입니다. 자국에 닥칠 재앙의

기운을 감지하고 동족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오히려 백성은 거짓말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예언자라고 그를 매도해 평생 괴로워해야 했던 사나이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의 이 시구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살다 간 모습도 그려보게 해줍니다. 그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은 예언자라는 점 외에도,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하느님과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열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백성(2,35)과 그런 오만함 때문에 당장은 당신 백성을 구해주실 생각이 없으신 하느님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그는 체험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정반대의 감정, 말씀이 주는 기쁨(15,16)과 그 말씀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15,17-18)을 한 몸에 껴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갈라져야 했던, 어찌 보면 그리스도만큼이나 격렬하게 고뇌했을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달한 신탁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동족이 미래를 옳게 설계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었으니, 마침내 행복한 사나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박해를 무릅쓰고 전달한 말씀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국의 비극을 극복하고 바빌론 유배 뒤에도 민족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③ - 인간관계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난주에 소개한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의 ①“문맹”(57-62항)에 이어, 이번 주에는 ②“길에 버려진 사람”(63-68항)의 요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회칙은 두 가지 점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상처 입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멈추어 다가가 직접 돌보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인데, 이는 사회적 우애(공동선)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처 입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들여야 할 사람으로 여긴 사마리아인의 ‘인간관’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선 누구나 예외 없이 서로 혈육의 관계입니다(63항 참조).

둘째, 사회적 약자(길에 버려진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마치 문맹(文盲)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른 이들, 특히 가장 부서지기 쉽고 취약한 이들을 무시하려는 유혹”에 일상으로 노출되어, 그들을 “동반하고 돌보며 지지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기 욕구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에 시간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회칙은 이런 현상이 ‘건전하지 못한 사회’를 드러내는 표지이며 ‘타락’이라고까지 비평합니다(64-65항 참조).

셋째,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의 소명은 “각 국가의 시민, 세계 시민, 새로운 사회적 유대의 건설자로서” 공동선을 향한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치·사회적 질서, 관계 조직, 인간적 목표들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다른 이들의 생활과 철저히 얽여 있으며,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수한 상호 작용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은 우리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론 ‘배제의 사회’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론 취약한 다른 이들을 자신과 동일화함으로써(인간 존엄의 동등성, 혈육 관계)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회복시키는 ‘포용과 돌봄의 사회’를 건설해야(보편적 공동선의 증진, 사회적 우애) 합니다(66-67항 참조).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접근법으로 인간 존엄의 의미를 찾으려는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칫 타인(세상)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고립의 개인주의, 또는 폐쇄된 집단 이기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에 분노를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안한 고립에서 벗어나, 인간의 고통과 접촉함으로써 변화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의 의미입니다”(68항). 🌐

##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 그분의 기운을 복돋아 드렸다.” (루카 22,43)

말기 간암으로 입원치료 중인 50대 남성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몇 달 전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았으나 더는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요양차 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말기로 진단받았던 환자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사가 받으란 치료는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받았다고 했다.

“너무 지쳐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욕심이겠지요? 사실은 애들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면서도 제가 죽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죽음이 겁도 나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치는 바라지도 않으니 착하게 몸 안에 그대로만 있으면 오래오래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암을 꼬셨다고 너스레를 떨던 환자였다. 그런 환자가 갑작스레 약한 모습을 보이니, 나는 당황스러운 한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처음부터 이 환자가 남은 시간을 잘 지내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든 살겠다고 하는 환자의 희망을 꺾는 것이 영 부담스러운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환자가 뜰을 들이며 “아무래도... 이제는 받아들여야겠지요?” 하고 묻는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달 가까이 그 환자를 더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 환자가 이유 없이 원목 신부의 방문을 거절한다는 보호자의 말에, 나는

그날 선불리 고개를 끄덕인 것이 돌이키기 힘든 실수였음을 알아차렸다. 내심 ‘마음 약하게 먹지 말라.’고 잡아주기를 바랐을 환자에게 내가 뭐라고 감히 고개를 끄덕였단 말인가? 나는 하릴없이 환자의 병실 앞을 지날 때마다 문밖에서 보호자를 만나 안부를 묻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환자의 마음이 풀리길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가 임종을 위해 마련된 병실에서 나를 찾았다고 했다. 환자는 자기 앞에 선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힘없이 한 마디 말을 건넸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환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부족함 없이 오가고 있었다. 환자의 눈이 서서히 감기는 것을 보면서 나는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죽음이 비켜 가게 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대신 고뇌에 싸여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시어 기운을 복돋아 주셨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조금 더 살고 싶다는 환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대신 나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환자의 기운을 복돋아 주고자 하셨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환자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말았는데, 이는 나의 얕은 지식을 강요하느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기운을 복돋아 주시는 주님을 알아 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제 다 된 것 같아요.”라는 유한성의 인정과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라는 연약함의 공감 사이에서, 그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셨다. ☸



## 교구 소식

###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3/23(토) 16시~18시

장소 파주 엑소더스(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39)

주제 이주의 시대, 난민은 누구인가? 공동선의 원리(각론) - 김항수 신부

문의 031-948-8105 (금, 토 휴무) / 1회 참석도 가능

### 2024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

날짜 4/26(금)~28(주일), 5/24(금)~26(주일)

코스 김포-파주-연천-철원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15만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7(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경당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3/29(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주소연, 정호용 요한크리스토토모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기억합니다

3월 23일은故 조진섭 요셉 신부의  
9주기입니다.

전신자 성경 읽기 3/17(주일)~23(토) : 루카 8,1-21



3/30(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 교구 소개

### ④ 교정사목위원회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

교정사목위원회는 가톨릭교회의 영성과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복음화와 교정교화를 위한 교도소 봉사회 ‘뭇자리’
-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성인 범죄로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대일 멘토링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보호관찰 봉사회 ‘사도회’
- 소년법 처분(1호)을 받았으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의 여자 청소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복지시설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길 잃은 이들을 위해 애쓰는 교정사목위원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및 봉사 문의 031-856-0213~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0-91811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미사 · 피정 ▶▶**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일시: 3/27(수) 14시  
장소: 교정사목센터 그루터기 (용현동 소재)  
대상: 교정 사목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 (전화, 문자 모두 가능)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3/2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기도 안에 열매 맺어가는 삶  
강사: 주현하 사도요한 신부(수원교구)  
문의: 010-2127-0032 (3/29 성금요일 휴무)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 원주교구**

6/14(금)~16(주일) 강한수 신부 (의정부교구)  
7/19(금)~21(주일) 안소근 수녀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8/16(금)~18(주일) 조규만 주교 (원주교구)  
9/20(금)~22(주일) 남궁민 신부 (원주교구)  
문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2박3일: 4/12(금)~14(주일)  
이나시오영신수련 2박3일: 4/12(금)~14(주일)  
내적여정에너그렘(기본): 4/12(금)~14(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다락방 피정**

초기 교회공동체 체험을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피정  
일시: 3/25(월)~26(화)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3/24(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4/12(금)~14(주일)  
성경 완독: 4/19(금)~27(토), 5/17(금)~25(토),  
6/21(금)~29(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일시: 3/18(월) 12:30~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피정**

날짜: 4/1(월) /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회비: 1만원, 신협 131-019-499331  
한마음청소년수련원

**3.4지구 성령기도회 영성피정**

일시: 3/22(금) 13시~16:30 (미사, 안수)  
장소: 주교좌 의정부성당 대성전  
강의: 양종석 베다 신부 (호평동 성당)  
문의: 010-379-0496

**가정선교회 4월 피정 및 미사**

성가정 영성 피정: 4/3일(수)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4/6(토)  
박현배 신부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4/20(토) 이준용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장소: 가톨릭회관 3층, 1층 강당 / 시간: 12:30~17시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부활 피정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날짜: 3/17(주일)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본원)  
대상: 만 35세 미혼 여성 / 회비: 2만원  
문의: 010-9816-0072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 피정: 매월 첫 금요일  
4/5(금), 5/3(금) 10시~15:30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내 300주년 기념 경당  
사순 피정: 3/19(화)  
단식 피정: 3/20(수)~24(주일) [4박 5일]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3월 고양-파주 평화지기 월례미사**

일시: 3/19(화) 20시 (매월 셋째 화요일)  
장소: 백석동 성당 2층 대성당  
대상: 평화사도, 민족화해분과장·위원,  
평화와 환경 보존에 관심있는 교우 누구나

**가정 회복 은혜의 날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3/18(월) 13시~16:30 (말씀,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https://linktr.ee/epiphania.c>

**교육 · 모집 ▶▶**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 음악원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성인&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출발: 6/29(토)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내용: 주중 영어연수, 주말 봉사활동(봉사인증 가능)  
문의: 053-593-1273 대구청소년수련원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http://cafe.naver.com/pjdoran)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http://haneul.caincheon.or.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3/31(주일)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http://ci.catholic.ac.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전문의 초빙**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산하 병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 치료 경력 및 학위자 우대)  
문의: 031-810-9062, [mleim@karf.or.kr](mailto:mleim@karf.or.kr)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3/24(주일) 09시	서울 분원 (장충동)	010-8353-2323 (문자)
	한국외방선교회	4/7(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부 / 한반도에 머물길 가까운 그대	010-8715-2846

**ICPE선교회 4차 로고스 아카데미 [탈출기]**

아기 엄마들을 위한 로고스 (비대면)

일시: 3/19~7/2, 매주(화) 10:30

직장 엄마들을 위한 로고스 (비대면)

일시: 3/21~7/11, 매주(목) 20:30

회비: 월 1만원 / 문의: 010-5646-6594

**치위생사 자원봉사자 모집 - 파주EXODUS**

일시: 매주일 13시~17시

(총 4명의 봉사자 월 1회 봉사)

장소: 파주엑스더스 치과진료실

(조리음 송비말길 79-39)

문의: 031-948-8105 파주EXODUS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 봄학기**

날짜: 3/20~6/19, 매주(수) [선착순 접수]

장소: 서울대학교 영성센터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교회사, 문화

문의: culture.catholic.or.kr 문화학교

**윤정 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대상: 피아노 및 오르간 전공자 (교중미사 반주 경험자)

미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문의: 010-5858-4257 성가대 단장

**제41기 복음화학교 개강**

마두동성당: 4/2(화) 11시, 010-9023-5380

**한국어교실 자원 봉사자 모집**

인원: 1명 (한국어교실교원자격증 보유)

일시: 매주일 14시~17시

장소: 파주엑스더스 한국어교실

(조리음 송비말길 79-39)

문의: 031-948-8105 파주EXODUS

**해외 가톨릭 보딩 스쿨 설명회**

일시: 4/13(토) 11시 (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학교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 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더블린(남), 보스턴(여)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례지오회 해외학교법인

**덕계동 성당 교중 성가대 지휘자 모집**

대상: 가톨릭 신자로 성가대 지휘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전공자, 전례음악의 이해가 있는 분

문의: 031-857-1695 덕계동 성당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저녁반 창단단원 모집**

합창 발성도 배우고 성지순례도 함께하는 삶의 동행

대상: 55세 이상 누구나 / 일시: 매주(수) 19시

장소: 서강대 앞 합창연습실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단장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상담원 모집**

함께할 보호상담원 모집 합니다.

문의: 031-826-7977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성앤베르센터 피정의 집(구파발) 직원 모집**

인원: 미화원 2명 (미화·숙소관리 등)

방호원 1명 (전기, 소방 자격증 우대)

절차: 1차 서류, 2차 면접 (개별통보)

접수: 3/27(수)까지

서류: 입사지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적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문의: imbert@seoul.catholic.kr

**순교영성 아카데미 - 순교영성 특강 시리즈**

<순교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

- 성경, 교의, 역사, 영성, 인문사회과학 등

날짜: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목) 14시~16시

장소: 새남터 순교 성지

강사: 두봉, 송봉모, 정희완, 양승국, 백남일,

조한건, 김성태, 조성일, 김재덕, 유은희,

윤진, 박희정, 한진욱, 이경재, 류지민,

한장호, 윤홍민

문의: 02-3275-1485, www.kmartyr.com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 (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40시간) 08:30~17:30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정기모집**

대상: 의정부교구 만 55세 미만 신자

오디션: 성가 1곡

연습: 매주(목) 20시, 매주일 교중미사 전

문의: 010-6802-8014 단장, 010-4231-8918 총무



안내 · 기타 ▶▶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 탐방**

4/13(토)~15(월), 6/15(토)~18(화): 수도원, 대구

5/4(토)~7(화): 수도원, 부산, 마산

6/28(금)~30(주일): 원주, 청주, 안동

출발: 서울 명동 (대형 버스)

5/15(수)~27(월) 바티칸, 독일 수도원, 이탈리아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4/9(화) 스페인, 포르투갈 11일 (450만원)

5/27(월) 다낭, 성모님 발현지 (155만원)

5/28(화) 이태리 11일 (545만원)

6/3(월) 알프스와 동유럽 11일 (4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17(금)~29(수)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5/30(목)~6/10(월) 유럽 성모발현지 (545만원)

6/27(목)~7/6(토) 동부지중해크루즈 성지순례 (54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4/11(목)~13(토), 4/20(토)~22(월),

4/24(수)~26(금), 5/2(목)~4(토),

5/6(월)~8(수), 5/17(금)~19(주일),

5/22(수)~24(금)

추자도 포함: 4/28(주일)~5/1(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15(월) 메추리교리에, 발칸3국, 헝가리 (12일)

4/23(화)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13(월) 동유럽 5개국 (12일)

5/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6/3(월) 중부 유럽 4개국 수도원 순례 (11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7(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 한국 천주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판공 성사

우리는 매해 사순 시기에 ‘판공성사표’를 받습니다. 회개와 보속의 사순 시기에 고해 성사를 봄으로써 주님 부활 대축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 보는 판공성사는 사실 한국 천주교회에만 있는 고유한 전통입니다. ‘판공’(判功)이라는 말은 ‘공로를 판별한다.’라는 뜻인데,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자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깊이 성찰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제는 신자들의 공과(功過)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90조)는 판공 성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1항 모든 신자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하여야 한다.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 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989조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므로(교구사제특별권한 제7조 참조) 이때에 맞추어 판공 고해 성사도 집전되어야 한다.
- 2항 부활 판공 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참조).

판공성사표			
부활(2024)			
지역구역번호	0101-06-001	전화번호	010-1234-5678
성명	홍길동	세례명	시몬
세대주	홍길순	관계	기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동)		
비고(메모)			
<small>※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이번 판공성사가 은총의 성사가 됩니다. 혹시 판공성사 기간 내에 성사를 보시기 어려우면, 판공성사 기간 이후라도 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제출하십시오.          천주교 의정부교구 양업1</small>			

이 조항을 바탕으로,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부활 판공 성사 기간 내 판공 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가 성탄이나 1년 중 어느 때에라도 고해 성사를 받으면 판공 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판공성사표에 “판공 성사 기간 내에 성사를 보시기 어려우면, 판공 성사 기간 이후라도 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게 하였습니다. 판공성사표를 본당에 제출하면 그 내용이 교적에 기록되는데, 이

는 신자 개인의 신앙생활과 전체 신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사목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즘 많은 신자가 고해성사를 부담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성사는 하느님과의 친밀함과 영적 자유라는 놀라운 은총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어온 판공성사의 전통을 통해 더욱 많은 교우가 주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전례**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 성삼일 전례 안내

3월 28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성목요일 미사, 현양제대 수난 감실 조배
3월 29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전례 (성지복구 특별헌금)
3월 30일 (토) 파스카 성야	오후 8시	부활 성야 미사

\*성삼일 동안에는 평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3월 31일 주님 부활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봉헌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3월 17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3월 24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본당공지**

▣ 부활 판공 성사

부활 판공 성사는 사순기간 동안 보시고 성사표를 고백소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 연례 피정

본당 신부님께서 3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교구 사제 연례 피정에 참석하십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동안 토요일 저녁 5시에 봉헌하던 저녁 미사를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저녁 7시로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시작 일시: 4월 6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

▣ 류병순(마리아 도미니카) 수녀님 선종

행주에서 출생하신 류병순(마리아 도미니카) 수녀님께서 지난 3월 8일에 60년간의 수도 생활을 끝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본당 류병순(미카엘) 형제님의 큰 누님이신 류병순(마리아 도미니카) 수녀님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별 수난 감실 조배 순서

시간	단체	시간	단체
22시-24시	성가대	06시-08시	3구역
24시-02시	운영위원회	08시-10시	4구역
02시-04시	1구역	10시-12시	레지오
04시-06시	2구역	12-15시	자유롭게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